

문화계의 UR피해 왜 외면하는가

尹青光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UR태풍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UR은 국회비준만을 남겨 놓고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 싫든 좋든 우리는 어차피 UR의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UR의 태풍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 출판·서적계를 비롯한 문화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걱정조차 제기되지 않고 있는가?

1995년은 이제 몇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고, 바로 1995년부터는 유통분야의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의 영세한 서점업계가 외국의 거대한 유통자본 앞에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UR이 우리 국회에서 비준되면 늦어도 1996년 7월1일부터는 '베른협약' 수준의 외국인 저작권보호를 해주어야 하며, 뒤이어 1997년에는 출판업도 완전 개방되어 외국의 거대한 출판자본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UR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대응력을 키워 놓어준을 살리기 위해 놓어준 특별세를 마련, 향후 10년에 걸쳐 약 15조여원의 자금을 놓어준에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UR로 인한 놓어준 대책비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UR로 인해 우리 문화계, 특히 출판·서점업계가 감수해야 할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보상도 대응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영세서점의 지원 육성자금도 마련되어야 하고 도서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자금도 마련되어야 마땅할 일인데, 아직껏 예산상의 지원자금이 전무한 상태이고 보면 UR의 태풍 앞에 농축수산물만 살려야 하고 문화는 망해도 좋다는 것인듯 답답한 노릇이다. UR의 타결로 인해 우리가 '베른협약' 수준의 외국인 저작권보호를 해주게 되면, 우리 출판의 경우, 전문 학술출판분야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기술서적, 예술서적, 학술서적 출판이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전문분야의 학술서적 출판이 위축되면 그만큼 우리의 모든 기술, 학문, 예술분야의 발전도 저해되어 새로운 산업발전과 문화창출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다.

학문과 문화예술의 발전없는 결코 경제발전도 달성할 수 없다는 '세계의 상식'을 우리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눈앞에 닥쳐온 UR의 태풍을 우리 출판·서적계가 이겨내고 당당히 서려면 우리는 하루빨리 도서유통을 현대화하고, 통일된 서지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서점을 육성지원하고, 공공도서관을 대폭 확충하여 전문분야의 학술도서 출판을 적극 지원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과 육성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놓어준에 투자되는 엄청난 예산의 단 10분의1이라도, 정부는 출판·서적계를 위해, 이땅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쌀을 살리고, 무우 배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얼과 우리의 문화와 예술과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출판·서적계를 지키고 살리는 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UR타결로 인한 문화계의 피해, 특히 출판·서적계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응당한 대책예산을 서둘러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알립니다

출판저널 다음호(제154호)는 여름철 정례휴가에 따라 8월20일자로 발행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표지인물 2 **정도 6백년 변천사 조명한 '서울考現學'**
「서울 지도」 펴낸 허영환교수

초점 4 **책으로 조명하는 '김일성과 그 이후'**
갑작스런 사망 계기 독자들 관심끌어...연연적 소설 주류

리뷰 6 **분단의 골짜기 건너 통일의 바다로** — 김기태
한반도 통일론 관련도서 어떤 것들 나와있나

출판화제 8 **자유로 인접지역에 출판도시 들어선다**
경기도 파주군에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기로 확정

- 서평 10 이화형 「이덕무의 문학연구」 — 김언중
- 김태원 「한국문화사회의 상황과 후기현대」 — 정준영
- 11 윌러스틴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 이수훈
- 12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 안경환
- 코폴스틴 「철학과 문화」 — 김창호
- 13 공지영 「고등어」 — 한원균

쟁점서평 14 **김옥동 「탈춤의 미학」** — 임재해

연재기획 16 **어린이책도 이념과 방법론 모색 필요하다** — 이호백
지금 이곳의 우리들 어린이책을 위하여 ①

초대석 19 **국제화 선도하는 문화출판 이방기르드 '열음사'**

- 이 책 그 사람 20 「뫼대에 불붙이는 여자」 낸 이석영씨
「약속의 땅」 낸 박이도씨
- 21 「이미지와 디자인을...」 낸 정진국씨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 낸 주영하씨

세계의 책 22 **금연운동 거부하는 담배의 엘레지** — 배병삼

컬러화보 24 **책과 사람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광장**
화보로 보는 '94서울도서전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어린이책 들춰보기

40 200자안내

44 정기간행물 주요목차

46 출판저널 총목차

48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김홍진

오직 기자만을 양성합니다②

신문 두 부, 원고지 열 매

입학시험을 치르고 난 연수생들이 처음으로 듣는 말은 "두 가지 이상의 신문을 살살이 읽고, 논평 기사를 매일 십 매씩 써서 제출하라"입니다. 삼백원짜리 신문을 삼만원의 가치로 활용하는 연수생들. 약속 빠르게 보충수업의 일환으로 그 일을 시키는 교무부. 연수생이 과정을 마치기까지 써 내는 원고지는 대략 일천매 내외입니다. 이외에도 돼지(?)는 약 백쪽 이상을 편집해 내야 합니다. 연수생들이 불쌍하다구요?



예비기자모집/대재 및 졸업자(전공무관), 현재 접수중
입학상담/(02)747-1991 취업보도실/(02)747-1993

대학로 파리크라상위 30m (4호선 혜화역)

한국저널리스트아카데미
KOREA JOURNALIST ACADEMY